

▶ 달러/원 주간 전망

• 강달러 기류 변화 이어지나... 美 물가·중간선거 주목

서울, 11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지난 주말 달러지수가 급락하고 역외 달러/원 환율도 이례적으로 대폭 하락한 가운데 이번 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의 최근 주거래 범위가 한 단계 낮아질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90-1,430원이다.

최근 달러/원은 이전의 상승 일방적인 움직임에서 확실히 벗어났다. 역내 수급 풀림이 완화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보다는 달러 강세 압력이 이전보다 둔화된 영향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긴축 기조는 유효하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작동한 상황에서 강달러 기류에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달러지수는 약 2% 급락해 2015년 11월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무조건 달러 '롱'을 외치며 쌓아 올렸던 포지션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투기세력들의 달러 순 롱 포지션은 작년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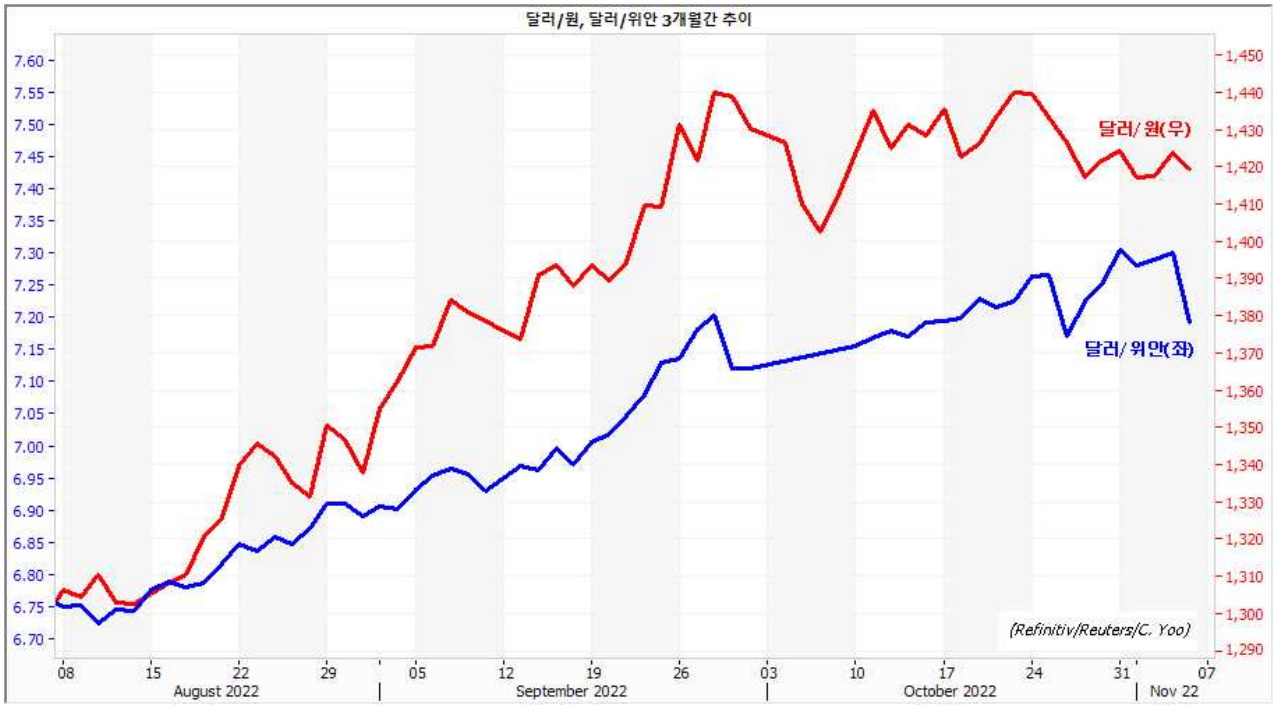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는 또 한 번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피크아웃 기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CPI 결과 따라 달러 방향성과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중간 선거도 예정돼 있다. 상원 35석과 하원 435석을 두고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점치기도 한다. 선거 이후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주가 상승과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를 잡을 경우 재정 지출 축소에 따른 채권금리 안정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중간 선거 결과로 인한 시장의 당장 큰 반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최근 시장의 양방향 변동성을 자극하는 중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최대 변수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오락가락하는 장세가 연일 전개되는 가운데 금주도 이로 인한 시장 변동성 리스크는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요 연준 인사들의 정책 관련 발언도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시장 반응도 살펴봐야 하겠다.

1,420원대를 중심으로 박스권을 형성했던 달러/원 환율의 주거래 레인지가 이번 주에는 한 단계 하향 조정될지 주목된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1월7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0: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0:00)
- ⊙ 금융감독원: 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12:00)
- ⊙ KDI: KDI 경제동향(2022. 11) (12:00)
- ⊙ 한국은행: 한국은행, 「BOK-KEA 국제컨퍼런스 2022」 개최 예정 (12:00)
- ⊙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12:00)

11월8일(화)

- ⊙ 한국은행: 2022년 9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0: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0: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10:00)
- ⊙ KDI: KDI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12:00)

11월9일(수)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07:30)
- ⊙ 통계청: 2022년 10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2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한국은행: 2022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2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11월10일(목)

- ⊙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회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 간담회 (09:3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10:00)
- ⊙ KDI: KDI 경제전망(2022. 하반기) (12:00)
- ⊙ 기획재정부: '22.11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17:00)

11월11일(금)

- ⊙ 관세청: 11.1~1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BOK-KEA 국제컨퍼런스 2022」 개최사 및 주요내용 (09:30)
- ⊙ 기획재정부: 2022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1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10월	3.015T	3.029T
11월7일		중국	수출	10월	4.1%	5.7%
11월7일		중국	수입	10월	0.1%	0.3%
11월7일		중국	무역수지	10월	95.80B	84.74B
11월7일	18:30	유로존	셱틱스지수	11월		-38.3
11월8일	00:00	미국	고용추이	10월		120.17
11월8일	08:20	일본	가계지출 YY	9월		5.1%
11월8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0월		1,238.1B
11월8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9월		1.6
11월8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9월		2.4
11월8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YY	9월	-1.3%	-2.0%
11월8일	20:00	미국	NFIB기업낙관지수	10월		92.10
11월9일	08:00	일본	로이터단칸 제조업지수	11월		5
11월9일	08:00	일본	로이터단칸 서비스업지수	11월		15
11월9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10월		2.3%
11월9일	08:50	일본	경상수지	9월		58.9B
11월9일	10:30	중국	PPI YY	10월	-1.4%	0.9%
11월9일	10:30	중국	CPI YY	10월	2.5%	2.8%
11월9일	21: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11월4일 주간		200.1
11월10일	00: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MM	9월		0.8%
11월10일	00:00	미국	도매판매 MM	9월		0.1%
11월10일	22:30	미국	CPI MM, SA	10월	0.7%	0.4%
11월10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31일 주간		217k
11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10월	12.0%	12.1%
11월10-17일		중국	위안화 신규 대출	10월	800.0B	2,470.0B
11월10-17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YTD)	1-10월		15.60%
11월11일	04:00	미국	연방예산	10월		-430.00B
11월11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10월		0.7%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1월7일(일)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총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 ECB 고위급 컨퍼런스서 사전녹화 영상 메시지 공개 (오후 5시40분)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클리블랜드 연은 주최 경제 심포지엄 참석 (8일 오전 5시40분)

11월8일(화)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리치몬드 연은 주최 행사 개최사 (오전 8시)
- ⊙ 일본은행(BOJ), 10월27~28일 통화정책회의 주요 발언 공개 (오전 8시50분)

11월9일(수)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SNB-FRB-BIS 고위급 컨퍼런스서 기조연설 (오후 5시)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2022년 버지니아 경제 서밋 연설 (10일 오전 1시)

11월10일(목)

- ⊙ 패드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위험관리협회(RMA) 필라델피아 지부서 연설 (오후 11시)
- ⊙ 델러스 연방은행 ·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공동 주최 에너지 컨퍼런스서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연설 (오후 11시35분) ·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설 (11일 오전 2시30분)
- ⊙ 티프 맥클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공공정책포럼(PPF)서 연설 (11일 오전 2시5분)

11월11일(금)

- ⊙ 휴장국가: 미국(재향군인의 날, 주식시장 개장 · 채권시장 휴장)

▶ 금주 세계 5대 이슈

⊙ 미국 중간 선거

미국 의회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를 어느 당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냐가 8일 중간 선거 결과 가려질 전망이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고 상원까지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미국 주식시장은 과거 행정부-입법부 또는 상-하원 교차 장악 시기에 좋은 성적을 내왔다.

상 · 하원을 양당이 나눠 가진 경우 S&P50지수는 연간 14%가 상승했고, 민주당 소속 대통령하에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13% 상승해 민주당이 정권과 의회 다수당 지위를 모두 가진 경우의 10%보다 높았다.

중간 선거는 또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상승을 불러왔는데, 지난 1년간 S&P500지수가 하락한 뒤라 많은 이들이 환호할 만한 전개가 될 것이다.

⊙ 물가 급등세 꺾일까

11월10일에는 올해 들어 급등하면서 시장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투자자들은 대규모 금리 인상 이후에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었는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이다.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이 경제에 초래하는 위협을 강조하며 기준금리 고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다면 주식 및 채권에 부담이 되고, 연준이 더 매파적이 되리라는 전망이 강화될 것이다. 로이터 조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은 10월 CPI가 전월비 0.7%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 긴축 속도 완화 전망

주요 10개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총 2300bp 이상 인상한 뒤 시장은 도비시한 피벗(정책 전환)을 기대했다.

그러나 연준과 영란은행은 지난주 금리를 각각 75bp씩 인상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사하듯 긴축 움직임이 덜 공격적인 양상을 띠 가능성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이미 지난 1일 25bp 인상을 단행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와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에 계속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시장이 바랐던 도비시한 피벗은 요원하고, 타격을 입은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인상폭 축소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위안 약세와 중국의 외환보유고

최근 며칠간 리오프닝 루머가 중국 자산 매입의 이유가 되었지만, 아직 상당한 자금이 심리와 지출 등 중국 경제의 전환 신호를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될 무역, 물가, 신용 지표에서 경제 호전의 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은 당국이 1994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안 절하 추세에 제동을 걸면서 줄어들고 있는 외환보유고로 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점점 줄어들며 심리적으로 중요한 레벨인 3조달러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보유액이 3조달러를 하회하면 달러 강세,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 한국, 대만, 일본 등 북아시아 국가들의 강한 환율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다.

⊙ COP27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의 개막으로 기후 문제에도 시장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식량 및 에너지 공급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급등이 주요 어젠다로 다뤄지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새로운 약속보다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빈곤국들의 가스 배출 저감을 돕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메탄 및 탄소 배출 저감 등 지난해 글래스고 회의 합의사항의 진척 상황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분석) 연준 회의 이후에도 숨 돌릴 틈 없는 투자자들

11월03일 (로이터) -

올해 거침없는 금리 인상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투자자들은 이번 연방준비제도 정책회의 이후 안전하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지난달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희망에 힘입어 주식과 채권으로 뛰어들었지만, 2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보낸 메시지는 이 같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인상폭이 작을 가능성을 신호하면서도, 정책금리의 '최종 수준'은 기존 추정치보다 높은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했다.

트레이더들은 재빨리 반응했다.

선물시장 내 금리 전망은 높아졌고, 이제 최종금리는 6월에 5.1% 부근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 정책회의 이전에는 약 5.02%로 전망됐었다. 미국 S&P500지수는 2.5% 급락했고,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09%로 4bp 상승했다.

블랙록 아이세어스 투자전략 부문 헤드인 가르기 쇼드리는 "주식 시장이 랠리를 보일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특히 이번 기자회견 이후, 주식에 대해 상당히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자산 가격은 희망적인 랠리를 보이다가 급격하게 반전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S&P500지수는 4차례나 6% 이상 반등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며 저점을 경신했고, 올해 현재까지는 21% 하락한 상태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여름 기간 2.7%까지 하락했다가 지난달 4.3%로 치솟았다.

FS인베스트먼트의 트로이 가예스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더라도 금리 인하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는 공격적인 리스크 자산 매수가 타당해지려면 "몇 개월, 몇 분기"가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금융여건이 더 타이트하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은 항상 얻는다"라며 "채권과 주식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부터 12월 연준 정책회의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오는 4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월간 소비자물가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연준의 대대적인 금리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향후 몇 달간 통화정책이 덜 공격적이게 될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T.로우프라이스의 스티브 바톨리니 미국핵심채권전략 매니저는 향후 금리 인상폭이 작아지면서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자산가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금융안정 이벤트"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속도가 아니라 목적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결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시장 반전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엑스년스의 찰스 커리 미국 채권 부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 직전까지 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그때까지는 "피벗이나 통화 완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419.2	0.2%	-16.2%	-8.6%	유로	0.9962	0.0%	-12.4%	-6.9%
100엔 대비	957.8	0.7%	7.9%	+1.8%	엔	146.61	0.6%	-21.5%	-10.3%
유로 대비	1,398.8	1.3%	-3.4%	-1.9%	위안	7.1927	0.8%	-11.6%	+2.7%
위안 대비	195.42	0.3%	-4.3%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2,403.22	-1.4%	-10.8%	+18.7%
코스피	2,348.43	3.5%	-21.1%	+3.6%	나스닥	10,475.25	-5.6%	-33.0%	+21.4%
코스닥	693.89	0.9%	-32.9%	+6.8%	S&P500	3,770.55	-3.3%	-20.9%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451.92	4.5%	-28.2%	-4.9%
국고채 3Y	4.118%	0.6bp	232.0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4.200%	0.8bp	218.9bp	+67.6bp	미국채 2Y	4.660%	25.0bp	393.0bp	+61.0bp
국고채 10Y	4.182%	1.5bp	193.2bp	+53.7bp	미국채 10Y	4.160%	15.0bp	265.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92.60	4.8%	22.7%	+55.8%	한국 5Y	75.4bp	9.9bp	53.4bp	-0.7bp
금(현물)	1,681.27	2.3%	-8.1%	-3.6%	일본 5Y	30.0bp	-0.2bp	12.4bp	+2.1bp
TR상품지수	3,479.62	1.4%	4.2%	+24.6%	중국 5Y	117.8bp	3.0bp	76.6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